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께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복 제목 : 강하고 건강한 복 성경: 마태복음 5장 3-12절

복,대한민국,

-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 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5:3-12)

우리나라는 참 복이 많은 나라다.

물론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한다면 가장 복이 많은 나라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적으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불행한 요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정확한 기준과 가치관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나라는 참 복된 나라다.

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거기에 더해서 기독교적 가치관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태도로 본다면 대한

민국은 가히 가슴 벅찬 나라다.

물론 현재 한국 국민들의 행복체감지수는 다양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왜 힘에 겨운가?

흔히 말하는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의 분배의 차이 때문일까?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일까? 미군이 물러가지 않아서일까?(현재는 1개 기갑여단, 1개 항공여단, 1개 포병여단) 정치인들이 잘못하기 때문일까? 종교인들이 잘못하기 때문일까?

-복잡한 이야기는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늘 개인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 보자.

흔히 개인이나 가정이 힘에 겨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지출은 고정되어 있고 수입은 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험한 길을 걷기 때문이다.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하지 않거나, 수준을 낮추지 않거나, 태도를 바꾸지 않거나, 고집을 꺾지 않거나, 거짓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충분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소유하고 있고, 충분히 안심할 수 있고, 분명한 미래가 보이지만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을 때.

-인생은 좌충우돌, 내가 실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실수한다.

-그러나 실수를 만회할 만한 건강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위험해진다.

거창하게 나라나 정부, 또는 각종 이념논쟁을 떠나서 간단하게 몇가지 사항이지만 걸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한평생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

정답은 이것이다. 힘겨운 삶의 탈출구는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힘겨움을 겪는다.

아기는 아기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가난하면 가난한대로, 부요하면 부요한대로, 힘겨움의 모양만 다를 뿐 대충 거기서 거기다. 스트레스도 비슷하고, 행복요인도 비슷하고, 불행요인도 비슷하다.

-아기는 행복할 거 같지만, 하루만 아기처럼 살아보라. 아기가 아닌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멋진 삶을 소개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현실적이면서 초월적이고, 실제적이면서 환상적이다.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가난한 것은 현실적이다.

-가난을 복으로 여기는 것은 초월적이며 역설적이다.

-‘복이 있나니’는 분명히 실제적이며 현재적인 표현이다.(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시제다.)

-복으로 주어진 것은 천국이다. 가히 환상적이다.

-현실적이며, 초월적이며, 역설적이며, 실제적이며, 현재적이며, 환상적인 것이 따로따로가 아닌, 시공간적으로 동일하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는 이것을 4차원적 현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현재 3차원에 한 차원을 더 한다는 뜻이다.

-사실은 4차원에서 한차원 뺀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

하고 있다고 해야 더 정확하다.

-3차원과 4차원의 차이는 이렇다. 물질+시간+공간+DNA+세포조직+기관+personality+문명+문화 등등이 3차원의 요소들이다. 거기에 생명을 더하면 4차원이 된다.

생명도 사실은 두가지가 있다. ‘네피쉬’로 표현되는 vitality-생기, 영원한 생명인 ‘조에’-성령에 의해서 부여지는 생명(영생)

-이 4차원을 대표하는 영생이 부여될 경우, (영생에는 성령이라는 인격체와의 관계를 의미함) 4차원적 현상이 가능해 진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라고 했을 때의 가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순히 가난한 생활을 의미한다.

-가난해 졌을 때, 즉 힘겹다고 느낄 수 있을 때가 곧 4차원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4차원에 대한 초점이 생긴다는 뜻이다.

-즉, 진정한 복이란 4차원적인 것이고, 천국이란 우리가 깨닫고 있는 3차원적인 세계에서도 충분히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천국을 버리고 지옥에 오신게 아니다. 이 세계에서 잃어버린 천국을 찾고자 오셨다. 물론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슬픔을 경험한 사람의 가치관은 분명히 변하게 된다.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가난의 의미를 알고, 슬픔의 의미를 아는 자들은 온유해지기 쉽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보상이 있다.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족을 얻게 된다.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지어는 의를 의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도 복이 있다.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특히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 복이 있다. 그에게는 기뻐할 만한 상이 있기 때문이다.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 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5:3-12)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